

설립정신을 되새겨 본다.



고 교장 조 창 호

仁聖 50년 禧年을 향해 또 한 계단 다가선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의미있는 것으로 길이 기념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인성을 있게 해 주신 설립자 고 이기혁 목사님의 10주기를 맞아 기념비를 건립하게 된 사실입니다.

황무지를 일궈 씨앗 뿌려 태동한 지 43년이 지난 지금 새삼스럽게 그분의 업적을 기려 기념하고자 하는 뜻은 설립자의 건학정신을 되새겨 새롭게 거듭나는 인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뜻인줄 압니다. 따라서 이 기념비가 가지는 뜻은 우리 인성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생활의 정신지표로서 내일의 인성의 높은 이상을 향해 간곡히 교훈해주는 교훈비라고 여겨집니다. 이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인성의 뜨락에 손수 뿌렸던 신앙의 새싹들로 자라고 있는 바로 인성인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운이의 뜻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은 생명의 뜻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을 향한 인성의 설립정신은 인성의 빛나는 전통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뜻을 가진 인성의 설립정신을 음미하고 되새겨 본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세속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대부분의 기독교학교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설립정신이 퇴색되어가는 상황에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여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성의 건학정신은 세운 이의 설립정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립정신은 평생을 두고 설립자가 주장했던 민족 복음화 운동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전국 복음화 운동에 대한 열정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담은 사진에 손수 남긴 다음과 같은 글귀에서 단적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글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 공산치하, 6.25전쟁과 같은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복음선교를 통한 전국의 복음화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평생토록 이 운동을 위해 일관되게 헌신했고, 특히 교육을 통한 구국의 일념으로 학원선교에 남다른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특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성교육기관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민족 복음화의 기초는 가정 복음화에 있고 가정의 복음화는 신앙인격인으로 성장하여 장차 주부가 되고 어머니가 될 여성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인성이 있게 한 뜻이요 정신입니다. 이러한 뜻과 정신은 우리가 자랑하는 교훈인 信仰, 自由, 奉公을 통해서 설립자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대로 인성인의 정신에 심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성학교를 세워서 그 뜻을 펴고자 했던 남다른 동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한 줄기 빛과 소금의 구실을 하는 생명의 씨앗을 심고자 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증상들로 가득찬 지금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야 합니다.

무언가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힘으로도 안되고 능으로도 안된다”는 말씀과 같이 지식이나 과학의 힘만으로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보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성인에게 거는 기대가 사뭇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信仰, 自由, 奉公의 校訓 아래서 연마된 인성인의 품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의 와중에 학교를 세우게 된 그 뜻이 말해주듯이 국운을 좌우하는 길이 교육에 있음을 알고 교육을 당신의 소명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전쟁의 참화로 배움의 길이 막힌 가난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희망을 던고 일어서는 정신을 우리 인성인에게 심어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가진 것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뜻을 굽힐 줄 모르는 불굴의 정신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으로써 이룩한 학교라는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설립자의 뜻과 정신이 비록 부족하여 전적으로 받들지는 못할지라도 인성인 모두의 가슴속에 감명깊게 간직되어지기를 바라며 소망의 빛으로 새로워지는 인성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지 [仁聖]은 이번 20호를 발간하기까지 그때그때의 인성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구실을 다했을 뿐만아니라 정신적으로 방황하기 쉬운 시대적 상황에서 확실한 가치관과 분명한 좌표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仁聖] 제20호의 발간을 자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仁聖] 20호가 탄생하기까지 애써 주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각별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